

## 나의 친구 천(川)이

윤 치 응

그 친구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 
나는 한 낮 외톨이 승냥이에 지나지 않았다  
다만 그 친구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보고는  
그 깨끗한 품 속 에서 맘껏 어우러져 놀았다  
그 다정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천(川)이

쌀알같이 뿌려진 햇빛 한 가득 끌어안아  
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천(川)이의 마음이나  
감기에 끄끔 앓는 가냘픈 딸 입맞춤 해주며  
밤을 꼬박 지새우는 어머니 마음이 뭐가 다를까

젖니도 안 빠진 아이들과 즐겁게 노래 부르며  
첨병첨병 뛰어노는 천(川)이의 마음이나  
토실토실 귀여운 아들 어부바 해주고  
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빠 마음이 그게 그거다

내가 어떤 불덩이 같은 시련과 마주치더라도  
가만히 앉아 이 정다운 친구를 바라보면  
그 불덩이가 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  
나는 이 오래된 친구와 같이 노닐다가  
오늘도 포근히 잠이 들 것 같구나